

제공 기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문 의 02-761-9243 [담당자 : 이범용 선임연구원]

2024. 10. 25. (금) 오후 3시부터 보도 가능

제 목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교육 실태 조사 실시
- 금융교육 경험 비율은 16.2%, 금융교육 만족도는 7.24점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온라인)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내에 은행과 공공기관 등 금융교육 제공기관*으로부터 금융교육을 받은 경우는 16.2%로 비교적 낮음

- 금융교육 경험자 중 금융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60.5%(은행 23.7%, 증권사 20.4%, 자산운용사 10.1%, 보험사 6.4%),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16.9%로 나타남

*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금융업계 단체(협회), 개인(프리랜서), 금융회사와 관련 없는 교육기관·민간단체, 공공기관(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등

- 최근 3년간 받은 금융교육 횟수는 연 0.75회(3년간 총 2.26회)로 희망하는 교육 횟수인 연 2.22회보다 적게 받음

- 한편, 최근 3년 내 가정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교육 만족도는 평균 7.24점으로 높은 편임

- 연령대별로 보면 60대(7.50점)가 가장 높고, 30대(7.04점)가 가장 낮음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만족도 (10점 만점)	7.30점	7.04점	7.31점	7.06점	7.50점

□ 금융교육 방식은 ‘집합교육-강의’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온라인교육’도 대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가 ‘집합교육-강의’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온라인교육(실시간 영상·녹화영상)은 청년층(20·30대)보다 중장년층(40·50·60대)에서 더 선호하였음

* 온라인교육(실시간+녹화) 선호도 : 20대 29.8%, 30대 37.3%, 40대 42.9%, 50대 44.6%, 60대 43.5%

구분	집합교육			온라인		서면/ 이메일	기타
	강의	실습/체험	강의+실습 /체험	실시간	녹화		
전체	28.7%	11.9%	16.9%	20.8%	19.0%	2.5%	0.1%
20대	28.7%	16.7%	20.7%	15.1%	14.7%	4.1%	0.0%
30대	27.8%	13.1%	18.2%	18.0%	19.2%	3.1%	0.4%
40대	27.3%	11.6%	16.8%	21.0%	21.9%	1.4%	0.0%
50대	29.5%	9.8%	14.2%	24.6%	20.0%	1.9%	0.0%
60대	30.6%	8.7%	15.1%	24.8%	18.7%	2.1%	0.0%

□ 금융교육 시기로 10대*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57.0%로 금융 관련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줌

*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 향후 금융교육을 통해 가장 배우고 싶은 분야 중 전문지식보다는 ‘금융상품 관련 일반적 지식’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1 조사 개요

☐ 서울, 수도권 신도시,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 설문조사 기간 : 2024년 7월 3일 ~ 7월 19일(17일간)

☐ 주요 설문내용

- 금융교육 경험·내용·만족도, 향후 금융교육 참가 의향·선호기관·형태·내용 등
- 가정 내 금융교육 현황 등

※ 용어 해설

- 금융교육 경험자 : 최근 3년 내에 1회 이상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
- 최근에 받은 금융교육 : 금융교육 경험자가 최근 3년 내에 받은 금융교육 중 설문 응답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받은 금융교육

2 주요 결과

가. 금융교육 실태

☐ (금융교육 경험) 최근 3년 내에 금융교육을 받은 경우(총 2.26회, 연 0.75회)는 16.2%에 불과

-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받지 않은 경우도 21.2%에 달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31.4%), ‘금융교육을 받아도 금융생활 등에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14.1%), ‘상담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금융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는 86.3%(매우 받고 싶다 28.9%, 조금 받고 싶다 57.4%)로 높게 나타남
- 향후 금융교육을 받고 싶은 횟수는 연 2.22회로 1년에 2회가 45.3%로 가장 많았음

받고 싶은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비율	27.6%	45.3%	12.7%	8.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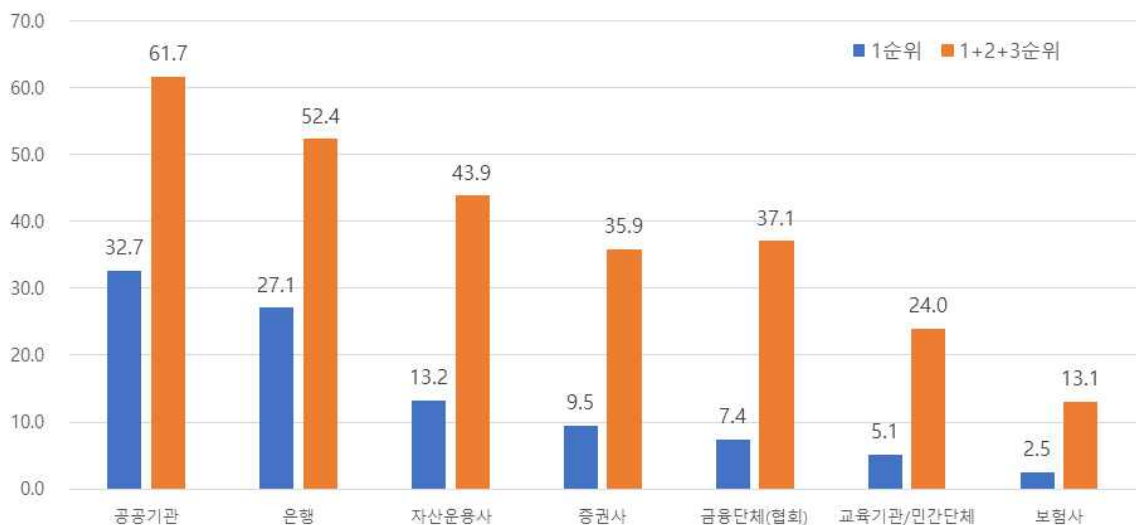
□ (금융교육 제공기관) 금융교육 제공기관*에서 금융회사의 비중 (6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금융업체 단체(협회), 개인(프리랜서), 금융회사와 관련 없는 교육기관·민간단체, 공공기관(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등

○ 금융교육 경험자 중 금융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는 60.5%(은행 23.7%, 증권사 20.4%, 자산운용사 10.1%, 보험사 6.4%)이며 공공기관 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는 16.9%로 나타남

* 금융교육 경험자가 최근 3년 내에 받은 금융교육 중 조사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받은 금융교육을 기준으로 응답

○ 향후 금융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에게 선호하는 기관을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32.7%), 은행(27.1%), 자산운용사(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로 전문성(금융 관련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 42.1%)과 객관성(객관적인 입장에서 금융교육 제공, 37.2%) 외에 비상업성 (금융상품 홍보 또는 가입 권유가 없을 것 같아서, 14.0%)을 선택함

□ (금융교육 내용) 금융교육 경험자가 최근에 받은 금융교육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관련 일반적 지식’, ‘투자상품 관련 선택방법 및 유의사항’ 등

구 분	최근에 받은 금융교육의 주요 내용(복수응답)
1위	금융상품 관련 일반적 지식(46.5%)
2위	투자상품 관련 선택방법 및 유의사항(34.0%)
3위	개인 재무상황 진단 및 재무설계 방법(30.5%)
4위	금융이론(자금순환, 금리·주가, 금융시장 등)(27.8%)
5위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방법(25.9%)

- 향후 금융교육을 받게 된다면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는 ‘금융상품 관련 일반적 지식’(51.3%)과 ‘개인 재무상황 진단 및 재무설계 방법’(45.5%) 순으로 나타남

구분	향후 금융교육 시 배우고 싶은 내용(복수응답)
1위	금융상품 관련 일반적 지식(51.3%)
2위	개인 재무상황 진단 및 재무설계 방법(45.5%)
3위	금융이론(41.0%)
4위	투자상품 관련 선택방법 및 유의사항(40.6%)
5위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방법(35.6%)

- (금융교육 형태·시간) 금융교육 경험자가 최근에 받은 금융교육은 ‘집합교육-강의’나 ‘온라인교육’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 이메일*	기타
강의	실습/체험	강의+실습 /체험	실시간	녹화		
38.2%	10.8%	8.3%	17.8%	20.1%	3.8%	1.0%

* 교육자료를 유인물 또는 문서 파일 형태로 받아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형태

- 향후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집합교육-강의’(28.7%)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층(40·50·60대)이 청년층(20·30대)보다 온라인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집합교육			온라인		서면/ 이메일	기타
	강의	실습/체험	강의+실습 /체험	실시간	녹화		
전체	28.7%	11.9%	16.9%	20.8%	19.0%	2.5%	0.1%
20대	28.7%	16.7%	20.7%	15.1%	14.7%	4.1%	0.0%
30대	27.8%	13.1%	18.2%	18.0%	19.2%	3.1%	0.4%
40대	27.3%	11.6%	16.8%	21.0%	21.9%	1.4%	0.0%
50대	29.5%	9.8%	14.2%	24.6%	20.0%	1.9%	0.0%
60대	30.6%	8.7%	15.1%	24.8%	18.7%	2.1%	0.0%

- 향후 금융교육 시 희망하는 교육시간으로는 집합교육은 평균 45.2분, 온라인 교육은 평균 33.4분으로 나타남

구 분		희망하는 교육시간(평균)	
집합교육	강의+실습/체험	55.6분	45.2분
	강의	41.1분	
	실습/체험	38.8분	
온라인교육	녹화	33.5분	33.4분
	실시간	33.3분	
서면/이메일		28.6분	

- ☐ (금융교육 만족도) 최근에 받은 금융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7.24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높게 나타남

* ‘만족’(10~7점) 71.6%, ‘보통’(6~4점) 26.3%, ‘불만족’(3~0점) 2.1%

- 연령대별로 보면 60대(7.50점)가 가장 높고, 30대(7.04점)가 가장 낮음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만족도	7.30점	7.04점	7.31점	7.06점	7.50점

- 금융교육 형태별로 보면 ‘집합교육-실습/체험’(7.83점)이 가장 높고, ‘온라인 교육-녹화동영상’(6.80점)이 가장 낮음(기타 제외)

구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서면/이메일*	기타	전체 평균
	강의	실습/체험	강의+실습/체험	실시간	녹화			
전체	7.41점	7.83점	7.10점	7.09점	6.80점	7.21점	6.60점	7.24점

* 서면/이메일의 경우 ‘전혀 읽지 않았다’고 응답하고도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준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만족도는 평균 7.06점으로 하락

- ☐ (금융교육 시작 시기) 금융교육을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시기로는 초등학교 4~6학년(26.3%), 중학교(17.2%), 고등학교(13.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10대에 금융교육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 ☐ (가정 내 금융교육 시작 시기) 자녀에게 처음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 시기는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 중학생 15.1%, 고등학생 12.1%, 대학(원)생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3년 내 금융교육 실시 여부) 최근 3년 이내에 자녀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36.3%만이 실시하였다고 응답함

-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몰라서’(55.9%), ‘가르치는데 활용할 만한 콘텐츠가 없어서’(46.6%), ‘가르칠 정도의 지식이 없어서’(39.7%)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가정에서의 금융교육의 주요 내용은 ‘돈의 중요성’, ‘용돈 관리’, ‘저축’ 등으로 나타남

3 시사점

- 지난 3년간 금융교육을 받은 경우는 적었지만 금융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앞으로 계속 관련 기관들이 협조 및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응답자의 62.6%는 지난 3년간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했으며 21.2%는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향후 금융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6.3%에 달해 금융교육 확대가 필요함
 - 다만,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받지 못했거나 금융교육을 받더라도 금융생활 등에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상당한 만큼 언제 어떻게 제공할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금융교육 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모두 집합교육(강의)이 온라인 교육보다 높았지만 각각의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대상과 장소, 시기 등에 맞는 교육방식을 선택해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금융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으로 금융회사보다 공공기관을 더 선호하는 만큼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금융회사와 다르게 비상업성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금융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금융교육 시 금융상품(서비스) 홍보나 가입 권유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금융교육 진행 시 상업적 측면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금융교육을 시작하면 좋은 시기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57.0%)이 10대(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로 응답한 만큼 학교 금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가정 내 금융교육의 경우 자녀 연령에 맞추어 가정에서 실행 가능한 금융교육 방법과 관련 콘텐츠 등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3년 이내에 가정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몰라서', '가르치는데 활용할 만한 콘텐츠가 없어서' 등을 선택한 만큼 가정에서의 금융교육 실행 방법과 쉽게 활용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